

북한, 생명공학 · 나노제품 수입확대

첨단기술정보센터 서비스 영역 확장 ... 첨단기술 보급 통해 수익증대

북한의 첨단기술봉사소(첨단기술정보센터)가 서비스 영역을 생명공학(BT)과 나노기술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 <내나라>에 따르면, 월간 화보 <조선> 6월호는 “봉사소가 앞으로 생명공학과 나노기술 분야 업무활동을 넓혀나가려 하고 있으며, 빠르고 효과적인 봉사를 경영이념으로 나라의 부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변함없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봉사소는 각종 첨단전자제품과 기구, 장치, 설비의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련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제품 구입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은 “봉사소는 국내 각종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자동조종체계, 수감고속 · 신호처리 · 정밀분석 · 진공정련 · 전력전자 · 생명공학 · 나노 등의 기술과 제품을 전자 상거래방식으로 보급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고한 지위를 확립했다”고 소개했다.

또 세계 각국에서 생산돼 판매되는 각종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기술자료가 구축돼 있어 고객들이 자체 검색을 통해 외국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각종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화응답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첨단기술봉사소는 3년 전 평양시 서성구역에 사무실을 열고 주로 컴퓨터를 판매했으나 최첨단기술을 보급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만경대구역 광복 전철역 옆에 지상 3층 · 지하1층짜리 건물을 짓고 2004년 4월15일 업무를 재개했다.

<화학저널 2005/06/08>